

성명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71 엘지서초에클라트 321호
전화 02-706-1372 팩스 02-576-9264 대표메일 consumer@can.or.kr

2023년 4월 28일 (금)

간호법 제정 환영 !

**지역사회 간호와 돌봄 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운미)은 국회에서 이익집단의 반발에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간호법을 제정한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변화하는 건강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간호와 돌봄을 전문화, 체계화하며 공공의료체계 발전에 초석을 다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하는 돌봄 수요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이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은 의료기관 중심 질병 치료에서 지역사회 재택 중심의 예방·관리로 변화 중이다. 우리는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전문화된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으며, 보다 부담이 적고 쉽게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 규율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업무를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적 재난·위기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배치, 교육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독립된 법 체계인 간호법이 필요함에 동의하고 지지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은 코로나 이후 전세계가 힘쓰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와 돌봄을 강화하며, 우리사회의 변화와 국민, 소비자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존 의료법에 담고 있던 간호관련 규정을 빼내어 낸 수준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만 가지고는 간호와 돌봄을

선진화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단기적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노동시간과 복지를 확보하며, 간호 인력의 양성과 수급을 안정화하고, 간호사의 윤리와 품질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와 소비자의 상호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를 발전시키며 간호와 돌봄을 선진화 하는데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

